

‘영원한 홈런왕’ 헝크 애런이 추앙받는 이유



스포츠 세상

박병현
전 세계일보 체육부장

이달 22일 87세의 일기로 작고한 헝크 애런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영원한 홈런왕’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아프리카계 흑인인 애런은 어려서부터 슴한 인종차별과 멸시를 받고 성장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결국 MLB 최고의 야구 선수로 등극했다.

그는 1974년 4월 백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전설적인 야구선수인 베이브 루스의 714호 홈런 기록을 깨뜨리고도 환호를 받지 못했다. 대기록을 작성한 순간 일부 백인 팬들은 경기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경기장에 난입하기도 했다. 오히려 백인의 대기록을 흑인이 깨뜨렸다는 이유 하나로 시기와 왕관의 대상이 돼 버렸다. 심지어 최다 홈런 대기록을 깨뜨리기 전에는 살해 위협을 받아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 했다. 715호 홈런을 친 뒤 소감을 묻는 말에 애런의 일성은 “이제야 끝났다”였다. 살해 위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백인들의 전유물 같던 메이저리그에서 흑인 선수로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생각하면 그의 정신력이 참으로 강했으리라 생각되는 대목이다.

골프공에 날인된 감아야구공으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인종차별이 심한 앨라배마에서 성장한 애런은 어려서부터 잔디를 깎고 얼음을 배달하는 허드렛일로 생계를 보태며 야구에 대한 꿈과 열정을 키웠다. 야구공값이 너무 비싸 애런은 못쓰게 된 골프공을 얻어다가 날인된 야구 지도자였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또래에 비해 야구 실력이 출중했지만 그는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일질 야구를 하지 않았다. 인종차별은 극심했고, 백인 학생만이 고등학교 야구팀에 있었기 때문에 애런은 야구와 비슷한 소프트볼팀에서 활약한 게 전부였다.

그는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야구팀이 아닌 미식축구팀에 들어갔다. 그러나 격렬한 미식축구를 하면서 부상을 입고 야구

선수로서의 꿈을 위태롭게 할까 봐서 그는 3학년 때 수업을 빼먹게 됐고, 그 이유로 퇴학을 당하였다. 그가 흑인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 애런은 흑인으로만 구성된 세미프로팀 모빌 블랙 베어스의 감독 에드 스코트의 눈에 띄어 주목을 받게 됐다. 애런의 천재성을 확인한 스코트 감독은 애런을 자신의 친구인 니그로 리그 베이스볼(NLB)의 아메리칸 리그 인디애나폴리스 클라운스의 맥킨리 다운스에게 소개했다. 당시만 해도 흑인이 프로야구의 최상급인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1947년 브루클린 다저스의 메이저리그 팀에 선발된 제키 로빈슨이 흑인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데뷔함으로써 메이저리그의 인종 장벽을 무너뜨렸음에도 흑인 선수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던 상태였다. 메이저리그의 허부리그를 전전하며 실력을 과시하던 애런이 메이저리그 밀워키 브레이브스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던 것은 1954년의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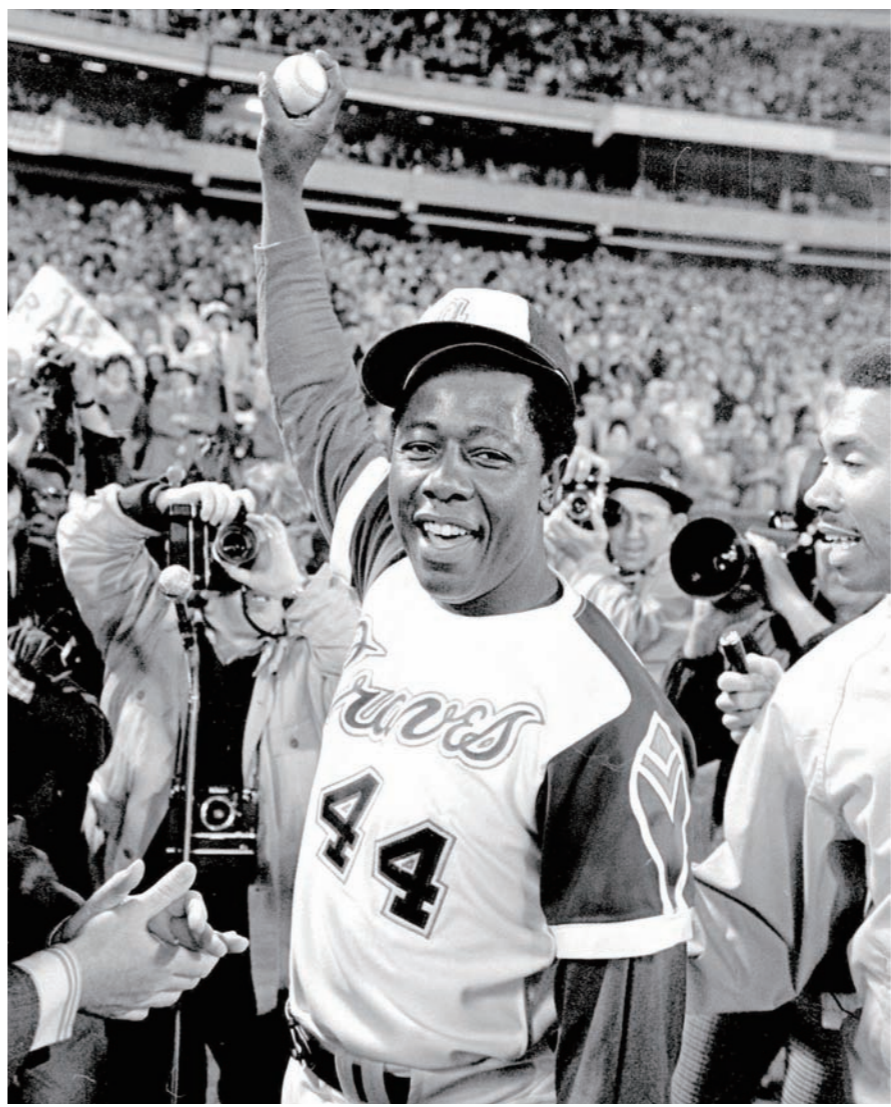
메이저리그 데뷔 열흘 만에 홈런포

1954년 스프링 캠프에서 주전 좌익수 보비 톰슨이 발목을 골절당하면서 애런에게 행운이 찾아들었다.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애런은 데뷔 후 열흘 만에 자신의 메이저리그 첫 홈런을 쳐냈다. 메이저리그 홈런왕의 역사적인 첫 출발이었다. 애런은 이후 매년 30개 이상의 홈런을 뽑아내며 이름을 떨쳤지만 조심과 겸손함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다.

1960년대 가장 위대한 선수로 성장한 애런은 1968년 7월 14일 홈구장인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자신의 500번째 홈런을 쳤다. 3만4000명이 넘는 관중이 그에게 몇 분 동안 기립박수를 보냈지만 베이브 루스의



1월 6일 헝크 애런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모습. AP/뉴시스



1974년 4월 8일 헝크 애런이 미국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LA 다저스를 상대로 베이브 루스의 기록을 깨는 715호 홈런을 치고 기쁨으로 공을 들고 있는 모습. AP/뉴시스

흑인은 메이저리그에선 뿔 수 없었던 때 베이브 루스 기록경신 앞두고 온갖 협박 은퇴 후엔 비폭력·흑인인권 운동 앞장 서

홈런 기록을 깨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애틀랜타는 미국에서도 인종차별이 극심한 지역이었다.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없었던 베이브 루스의 대기록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보스턴 레드삭스와 뉴욕 양키스에서 활약하며 1914년부터 20년 동안 투수와 외야수로 활약한 베이브 루스였다.

애런은 불과 3년도 채 안 돼 600번째 홈런을 쳤고, 그의 나이 39세이던 1973년 7월 21일에는 700번째 홈런을 날리며 미국 전역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이후 베이브 루스의 홈런 기록을 깨기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9월 29일에는 자신의 시즌 40번째 홈런인 통산 713번째로 홈런을 날려 한 개 차로 따라붙었지만 더 이상

의 홈런이 나오지 않은 채 해가 바뀌었다. 비(非)시즌 동안에 애런은 백인 영웅 베이브 루스의 기록이 깨지는 걸 두려워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보낸 온갖 협박편지로 위협을 당했다. 이로 인해 개인으로서 역사상 가장 많은 우편물을 받은 인물로 평가되기도 했다. 이렇듯 그는 최상의 영예와 최악의 모욕을 동시에 경험한 보기 드문 인물이었다.

해가 바뀌어 베이브 루스의 홈런 기록이 깨지는 것은 당연했고, 초읽기에 들어갔다. 언젠가 기록이 수립되는데 관심이 쏠렸다. 1974년 4월 4일 베이브 루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714호를 터뜨렸고, 4일 뒤 애런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상대

로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이후에도 그의 홈런 퍼레이드는 계속되었다. 그는 42세이던 1976년까지 22년간 선수로 뛰며 통산 755개 홈런을 기록하고 그라운드를 떠났다.

슬럼프 없는 꾸준함의 대명사

애런에게는 베이브 루스에게서 볼 수 있었던 화려한 면모는 없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시즌 50홈런 이상을 기록한 적도 없었으며, 언론의 이목을 크게 끌지도 못했다. 그러나 그는 매년 슬럼프 없이 꾸준한 활약을 보였다. 그랬기에 역대 선수 중 통산 홈런타점·장타수·루타수(Total Bases) 등에서 1위, 안타수 3위에 오르는 금지탑을 쌓을 수 있었다.

애런은 훌륭하고 뛰어난 야구 실력도 갖추고 있었지만 유니폼을 벗고 사회에 나와서도 항상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한평생을 살았다. 그가 존경을 받는 이유다. 비폭력주의자였던 애런은 특히 흑인 인권운동과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그의 인내와 높은 정신력을 기려 애런이 베이브 루스의 기록을 갠 25주년을 맞아 1999년 2월 ‘헝크 애런 상’의 창설을 선언했다. 이 상은 아메리칸과 내셔널 리그 통틀어 최고 타자들에게 해마다 수여되고 있다. 흑인으로서 처음 이름을 따 제정된 상이다.

작고하기 직전까지도 흑인인권 운동

1982년 한국 프로야구팀들과 친선경기를 위해 마이네리그 올스타팀의 단장 자격으로 방한한 애런은 당시 받은 초청료 전액을 주한미군에 기부하기도 했다. 남북 전쟁 때 남부군의 본거지였던 애틀랜타를 연고로 하는 브레이브스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흑인 빈민 운동에 앞장섰다.

애런은 숫자상으로도 대기록을 작성했지만 온화한 성품과 인성은 대단했다. 야구의 상징적인 존재였지만 미국을 넘어 전 세계의 팬들에게 모범이 된 인물이었다. 그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이달 초 흑인들이 백인에 대한 불안감과 거부감을 갖자 솔선해서 공개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섰다. 그가 타계하기 불과 2주 전이었다.

선수시절에는 홈런타자로, 은퇴 후에는 흑인 인권 운동가로 활약한 애런이었다. 이제는 차별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에서 영면하기를 바란다.

일본에서 죽은 위덕왕의 왕자



新삼국사 산책

정재수
역사작가

아좌태자와 임성왕자의 불운

백제 27대 왕인 위덕왕은 서기 554년 관산성(현재의 충북 옥천) 전투에서 신라군에 잡혀 전사한 성왕의 아들이다. 위기에 빠진 백제의 국력을 다시금 회복하고 중흥의 발판을 마련한다.

위덕왕은 554~598년까지 45년 동안 재위했다. 백제 후반기 왕 중 비교적 재위 기간이 길다. 그런데 위덕왕 사후 보위를 이은 왕은 아들이 아닌 동생 해왕(28대)이다. 그렇다면 위덕왕에게는 아들이 없었을까?



쇼토쿠 태자 초상화 구미이마지

아좌태자와 임성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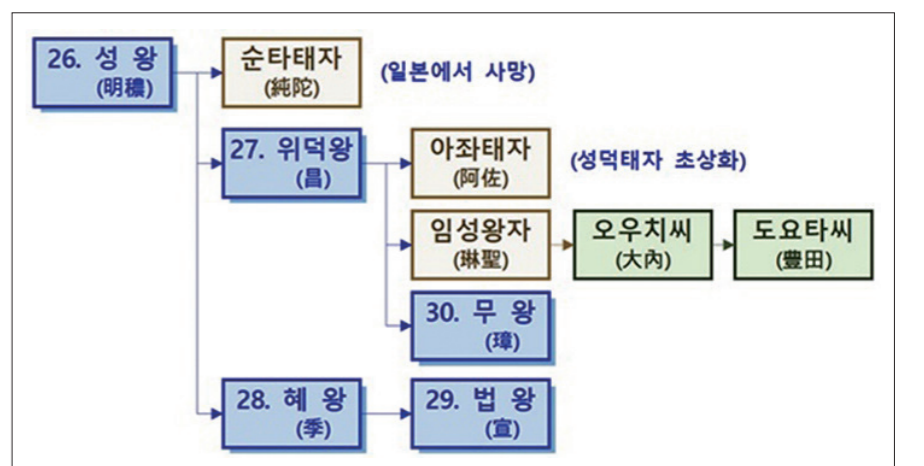
〈일본서기〉와 일본문헌(족보)에 위덕왕의 아들이 나온다. 아좌(阿佐)태자와 임성(任聖)왕자이다. 두 사람은 위덕왕 재위

말기인 597년(위덕왕 44년)을 전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유는 해왕의 아들 효선(법왕)과의 권력투쟁에 패해 백제에서 숙청당했기 때문이다.

아좌태자는 일본 중심지인 오사카(大阪) 지역에 정착한 뒤 쇼토쿠(성덕·聖德)태자의 초상화를 그렸다. 쇼토쿠는 일본 최초의 불교 사찰인 호류지(법루사·法隆寺)를 창건해 일본 불교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임성왕자는 일본 서쪽 야마구치(山口)에 정착했다. 처음 성씨는 다타라(多多良)이다. 이후 그의 직계 후손이 오우치(大内)가문을 형성했다. 이 가문은 14세기 한반도와의 무역을 독점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일본의 유력 호족으로 성장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그의 후손 오우치 요시히로(大内義弘)가 조선에 공문을 보내 시조 임성왕자의 족보를 입증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기록도 나온다. 당시 조선정정은 어떤 문헌에서도 임성왕자의 기록이나



성왕-위덕왕-무왕 계보도

필자 제공

흔적을 찾지 못했다. 이후 오우치 가문은 에도막부에 의해 멸문당한 뒤 그 중 일부가 도요타(豊田) 가문으로 분화한다.

아좌태자와 임성왕자의 운명

위덕왕의 동생 해왕은 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자연사한다. 뒤를 이어 해왕의 아들인 법왕(29대)이 즉위하지만 역시 1년을

갖 채우고 사망한다. 그렇다면 위덕왕의 직계인 아좌태자나 임성왕자가 백제로 돌아와 다음 보위를 잇는 것이 순리이다. 그러나 역사는 이들 두 왕자가 백제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기록한다. 왜일까?

위덕왕에게는 또 다른 숨겨진 아들이 있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서동요의 주인공 백제 30대 무왕이다.